

아까시나무로 家具 만든다

아까시나무는 1907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지난 '60년도부터 造林을 시작 지금까지 30여萬ha에 植栽, 과거에는 주로 땀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山林廳 林業研究院 임산공학부에서는 새로운 용도開發로 家具를 만들어 효용도를 높이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美國이 원산이며, 낙엽활엽 교목으로 높이 25m 직경 170cm까지 생장하는 콩과식물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장이 양호하며 꽃은 5-6월에 개화, 독특한 향기를 갖고있고 재질은 比重이 크도 강도가 높으며 내구성이 강하고 색상과 무늬가 아름다워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07년 최초로 도입 國內 묘포가 설치되면서 造林이 시작되었고, 황폐지 복구사업과 연료림 조성용으로 植栽되었으며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와 混植造林하여 現在 全國적으로 분포되고 자라고 있으며,

아까시나무는 연료림조성용으로 植栽되

어 땀감으로 이용되었으나 農村에 연탄이 보급되면서부터 연료림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용재림으로 가꾸어 일반용재 생산이 가능하도록 키워나갈 計劃이다.

山林廳 林業研究院은 아까시나무를 利用, 마루판·차량상판·탁자등을 제조 사용한 결과, 現在 이용수종보다 강도가 높고(케루잉보다 13%, 낙엽송보다 76%) 彩色과 무늬가 아름다우며, 強度 및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아까시나무의 수종개발, 목재생산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檢討하기 위하여 山林廳은 아까시나무 研究會를 통한 아까시나무 용도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1991년 統計에 의하면, 아까시아 꿀을 5,600톤生産 約 4百45億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물이다